

“생활 인구 300만명 달성 최선”

무주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방소멸 위기 공감대 확산·해결 방안 모색

무주군은 10일 무주 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단체 및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활 인구 300만 명’, ‘인구 활력 도시 무주!’ 등이 새겨진 소형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다자녀 가정(3자녀)인 무주를 강석봉·정수경 부부, 무중면 이상현·유아인 부부, 설천면 나병필·응랜티아엔니 부부, 3대가 전입한 안성면 송귀복·박찬희 부부가 무주군 인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어진 인구정책 강연회에서는 전영



무주군은 10일 무주 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수 함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변화와 로컬리즘, 무주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의 성장동력에 대한 통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체류 인구수가 정주 인구의 10.6배에 달하는 무주군의 현실에서 볼 때 생활 인구는 무주의 성장 동력이자 소멸 위기에서 지역을 구할 활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관광자원의 확충과 콘텐츠 발굴을 통

해 더 많은 생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막연한 목표를 넘어 구체적 실행에 나설 때”라며 “생활 인구 3백만 명 달성을 통해 생기 넘치는 무주를 만들 것”이라며 “모두가 이 자리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가 간절한 만큼 생활인구 3백만 달성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BETTER里 무주군 지역 간담회 개최

지역 상생 위한 발판 호평

2025 BETTER里 무주군 지역 간담회가 10일과 11일 양일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와 참여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청 인구, 문화, 관광, 산림, 마을공동체 관련 공무원, BETTER里 참여기업 대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기념식과 참여기업 발표,



배터리 기업과 무주군청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만남의 시간 등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는 참여기업이 △체협 콘텐츠 연계(산림복지, 농촌활력), △지역문화·축제 연계(태권문화과), △청년 및 인구·지역 정착(인구활력

과)을 주제로 마련된 각 테이블을 순환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청의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배치돼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행사와 참여기업의 콘텐츠 융합 방안, 무주군 청년 정책을 연계한 기업 정착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11일에는 안성면 두문마을의 안성낙화놀이 정수관, 설천면 태권도원, 지진마을 돌담길 등 참여 기업들이 상품화를 희망하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부남면 ‘비단강 문화센터’ 개관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비단강 문화센터’가 10일 개관했다. 비단강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결실로 총 668.7㎡ 규모로 조성됐다. 1층(336.85㎡)에는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 운영사무실, 주민 사랑방을 갖췄다. 2층(331.85㎡)에는 다목적회의실, 공유 부엌, 동아리실, 주민 공방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무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주관한 이날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내외인 등 1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부남면민들의 숙원을 이루게 돼 기쁘다”라며 “새로운 생활·문화거점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공간이 쓰임새를 다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력 대응에 돌입하고 있으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활용해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하고 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

장수군, 폭염 취약계층 모니터링·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 추진

장수군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력 대응에 돌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6월 말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28일 장수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무주에서도 평년보다 발빠르게 폭염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야외근로자, 영농작업자, 재난취약계층 등 주요 3대 취약분야 보호 대책 마련을 중점을 두고,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폭염 취약계층 모니터링 등 폭염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영농·육외작업장 등 고온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강화, 전 군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군 내 무더위쉼터 286개소, 그늘막 44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 중이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활용해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폭염 상황을 주민들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1회 재난문자 발송과 하루 2회 마을방송,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폭염은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10일 홍삼 판매장 및 가공업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조성사업의 개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홍삼 판매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 배치(안)를 공유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는 진안BC 맞은편에 위치하며 2021년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초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총 159여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2,952㎡, 지상1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홍삼 판매점 25개소와 함께 편의시설, 전문음식점, 카페 등 부대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시설인 홍삼 판매점 25개소는 진안군 관내 기존 판매시설의 입주 주요조사를 통해 반영됐으며, 해당 내용은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산재한 홍삼 판매장을 집적화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판매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제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중앙에 조성될 광장은 열린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공간에서는 직거래장터, 지역 농산물 풀리마켓, 소규모 공연,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시설 구성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체험·휴식·소통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화면서, 진안홍삼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시설 배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지역자활센터, 전국 최초 ISO 45001 인증 획득

장수군 전북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가 지난 1일, 전국 250여 개 지역자활센터 중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조직 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다양한 사업단과 참여인력이 활동하는 자활센터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증은 더욱 의미가 깊다. 센터는 인증 취득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각 사업단의 작업환경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했다. 또한 전 직원과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훈련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안전역량 향상에도 힘썼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풍당풍당 야외족욕장 12일 개장... 10일 오프닝 행사

진안군은 오는 12일 마이산 북부 농촌테마공원 일원에 조성된 건강 테마형 관광시설인 2025 진안 풍당풍당 야외족욕장'을 개장한다. 이 시설은 진안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홍삼산과와 족욕카레 체험을 실의에서 제공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건강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족욕장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11:00~17:00) 4일간 운영된다. 군은 족욕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월별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개장을 기념한 오프닝 행사 '웰컴 진안! 오프닝데이'가 개최된다. 행사 당일에는 냉족욕 체험, 미트볼 냉 파스타 나눔, 인간 아이스 불링놀이, 마술·발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